

지역 매 아 리

'인재 육성' 열악한 재정에도 수십억 지원

정읍시청 청원경찰 19명

심폐소생술 전문가로 '거듭'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에서는 최근 정읍시청 청원경찰 19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골든타임 사수! 서남부권 지역 응급의료체계구축 사업'과 관련한 지역행복생활 사업의 일환이다. 시청사 안팎에서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숙련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조 할 청원경찰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위해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미국심장협회가 인정한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에 재직 중인 김운봉 교수와 2명의 전문 강사가 초빙됐다. 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론교육,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병행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상황별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실제 다양한 발생 사례를 예로 들며 상황별 맞춤형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한 교육생들의 높은 관심이 있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청원경찰들에게는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정한 이수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 읍면동, 학교, 경로당,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교육했다"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회하며 완벽한 생명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서 청문실, 중심관리자 '비위예방 솔선 다짐 토크'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에서는 최근 각 과·계 팀장 등 전 관리자가 참석 비위예방 실천을 위한 다짐 토크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의 의무위반 행위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스스로가 노력함은 물론 중간 관리자들이 솔선, 모범을 보이고 곁에 있는 동료에 관심을 가져 단 한 건의 의무 위반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수사지원팀장 임태호 경위는 "이번 다짐을 통해 성찰하며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항상 올바른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를 함양하여 의무위반 없는 고창경찰로 거듭나 주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재 서장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스스로가 경찰공무원의 품위에 걸맞게 행실을 해줄 것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장 내 성 비위 예방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민의 혈세 지원... 부안교육지원청, 군 정책 역행 댓집

부안군이 미래 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 부안교육지원청에 2018년도 교육협력 사업으로 수십억 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군 정책에 역행, 댓집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촌지역인 부안군은 현재는 16만 명으로 고령화 부녀화로 인구 5만도 붕괴 위기에 따라 비상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공무원 및 가족, 유관 기관 사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안군이 역점적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인구 늘리기 사업에 도비 1억8천여 만원, 군비 10억 2천만원 등 총 12억6천600만원을 교육지원청 주상인 정찬호 교육장을 비롯한 초·중등 교사 절반 이상이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군

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부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부안 관내 초·중학교 교원들의 거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440명 중 30%인 160명만이 부안에 거주하고 64%인 280명이 전주, 익산, 관사 등 40명이 관외에서 출·퇴근, 절반 이상이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예다 부안군은 2018년도 부안교육지원청에 들어온 영여 보조교사 지원, 으뜸 인재 육성사업, 기숙학교 지원, 방과후 학교 활동 지원 등 16개 사업에 도비 1억8천여 만원, 군비 10억 2천만원 등 총 12억6천600만원을 교육지원청 주상인 정찬호 교육장을 비롯한 초·중등 교사 절반 이상이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군

그러나 부안군은 열악한 재정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62.4% 재정자립도로 막대한 예산을 부안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지만 부안군 정책에 역행, 부안교육지원청 수장인 정찬호 부안교육장을 비롯하여 정하사, 그리고 초·중학교 일부 교사들의 월급은 부안에서 받고 거꾸로 타 지역에서 생활하며 세금까지 그 곳에서 내고 있는 셈 이여서 부안군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부안군의회 문찬기 의원은 부안 관내 교사들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청소년들의 인재 육성은 물론 자치단체의 정책을 서로 협력, 부안군이 추진 중인 인구증가 시책에 동참, 교사들이 지역을 지켜야 지역경제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치매로부터 걱정 없는 행복한 고창 '앞장'

고창군치매안심센터 개소

전문 치매관리 토대 구축
환자 삶의 질 ↑·가족부담 ↓

고창군(군수 유기상) 보건소가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창군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지난 2일 치매안심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유기상 고창군수, 고창군 노인복지관 관장 대원승,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정종만 관장, 고창소방서 박진 선 서장을 비롯해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 치매환자와 가족 보건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치매안심센터는 고창군보건소 부지 내에 연면적 363㎡ 규모로 증축하였으며

며 상담실, 검진실, 컴퓨터,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등을 갖췄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맞춤형 상담, 치매조기검진,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활동, 보건복지지원 연계,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치매치료관리사업, 재가중증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 지원과 환자 가족을 위한 해어릿가족교실, 가족카페,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내년 주민참여예산 20억5000만원 편성

부안군이 2019년 주민참여예산을 20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지난 1일 부안군은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읍면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제안사업 40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각 읍면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사업 15건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행복사업 12건 등 총 27건 15억 원으로 부안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 지역밀착형 도민제안사업으로 접수된 3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농어촌도로 정비 가드레일 설치 사업 등 총 18건에 5억 5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결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부안을 주요 도로 변 제초 및 화단 정비사업, 추산면 신성~산돌 하천 정비사업, 동진면 도로 변 배롱나무 보식 사업,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화면 계화 조류지해맞이 전담대 조성, 변산면 유유 양 잡농업 체험 기반시설 정비 등이다. 권 군수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순수 민간인으로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편성해 기획부터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반만년 역사 기억하며 흥익인간의 참 뜻 이어가자'

고창군서 개천절 국조 단군 숭봉제 열려

고창군 단군성전보전위원회(위원장 김학수)가 3일 교촌마을 성산에 위치한 단군성전 본전(고창읍 교촌리 225-5번지)에서 단기 4351년 개천절 국조단군 숭봉제를 거행했다.

이날 제례는 초헌관(유기상 고창군수), 아헌관(조영훈 전 고창향교 유도회장), 종헌관(이종수 전 흥덕향교 전교), 지역 회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국조단군 숭봉제는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행사다.

아울러 문화민족으로서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여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흥익인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의 정신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제례 의식이다.

고창군 단군성전 본전은 국조 단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군민의 순수한 성심으로 건립됐고, 당시 건립에 동참한 인원만 1250여 명에 달했으며 많게는 벼 20석, 적게는 1가마씩 무려 1125석이 모여 1979년 성전을 세웠다.

유기상 군수는 "단군성조께서는 이 땅에 나라를 세운 뜻깊은 날



고창군 단군성전보전위원회가 3일 교촌마을 성산에 위치한 단군성전 본전에서 단기 4351년 개천절 국조단군 숭봉제를 거행했다.

을 온 군민들과 함께 경축하며 하늘이 열리고 새날의 밝은 기운이 솟아오른 개천절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되새려 흥익인간의 참 뜻을 이어가자"고 말하고 "술한 어려움 속에서도 뜨거운 의지와 열망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선조들의 뜻을 다시 한 번, 이 시대, 우리 손으로

되새려 명실상부한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 단군성전보전위원회는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영정을 모셔놓고 매년 10월 3일 국조단군 숭봉제를 거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유진섭 시장-농아인협회, 농아인 체육활성화 방안 모색

(사)전북농아인협회 정읍시지회(지회장 이상점 회원 62명, 이하 정읍지회) 회원들이 최근 유진섭 시장을 방문해 농아인들의 체육활동을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정읍시청 정읍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성현정 씨의 수화로 진행된 이날, 농아인들은 "농아인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유시장은 농아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 등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해결 방안 모색했다. 유시장은 "농아인들 대부분 모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 못지않게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서적인 건장을 유지하고 성취

감을 만끽함은 물론 사회적 안전과 자아실현 욕구를 자연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과 지원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달 14일부터 이틀 동안 부안 스포츠폰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 38회 전북농아인체육대회 우승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전라북도협회(회장 김상표) 주최, 부안군지회(지부장 김은경) 주관으로 전북지역 청각·언어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속의 열전'이라는 주제로 디스코 골프, 볼링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으로 치러졌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서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정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호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